

국립돌진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익산 그랜드취업박람회 참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입주기업이 11월 2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16 익산그랜드취업박람회에 참가해 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와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용관을 개설하고 홍보제작물과 자료를 전시해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비전 및 전략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BTC, 하립, 씨엔씨테크, 원광제약, 삼보관지, SCDI 세인식품, 에버캠텍, 하부의아침 등 입주예정 기업 9개사가 각각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입주 시 인력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구직자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각 기업부스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등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전국 동요 공쿠르 개최

군산시가 유네스코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12월 3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에서 '군산 어린이행복 전국 동요 공쿠르'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군산 어린이 행복 전국 동요 공쿠르는 군산시합창연합회(지부장 김재석)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도와 군산시가 주관하며, 어린이행복 도시 조성에 뜻을 같이하는 자연친화기(대표 문성호), 선연산업(대표 심길수), 흥익플랜트(대표 탁재연)의 후원을 통해 개최돼 그 의미를 더한다.

참가부문은 초등(유치부·초등부), 중창(초등부 12인 이내), 합창(초등학교 어린이합창단 30~50인) 3개 부문으로, 전국 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여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4916-1679, 063-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교통안전 특수시책 시행 전년대비 교통사고발생 대폭 감소

군산경찰서는 올 한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과 사고예방을 위해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교통경찰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대비 교통사고발생에 대폭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경찰은 2016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간담회와 취약지 152개소에 대한 정비, 교통안전경보 발령 기상·노면 상태에 따른 교통안전 문자 발송, 홍보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군산에서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 29%(362건)감소, 교통사고 부상자 31.1%(9명)감소, 교통사고 부상자 29%(581명)감소, 보행자 교통사고사망자 50%(6명)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거뒀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익산시는 2일 오후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계자문 대상은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익산종합운동장 개선공사로 총 282억원이 투자된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기술 관련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등 총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설계의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경제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안전 및 공사 추진계획 등 전반적으로 자문을 실시했다. 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건설공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영원 감사담당관은 "모든 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설계인 만큼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철저한 수사 요구

군산에도 시국선언 잇따라

군산지역에서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각 대학교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일 참여저지 군산시민연대와 군산여성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군산지역 비상사국회의'는 군산시청 현관 앞에서 비상사국회의를 결성하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파괴! 헌정질서 파괴! 국민우롱!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새누리당은 꼬리자르기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현

사태는 청와대 인사와 내각교체 정도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새누리당 역시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최순실의 즉각 체포를 미루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있는데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정권에 의해 사유화 되어 있는 검찰은 결국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은폐하고 꼬리자르기만 할 것은 명백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진실규명과 국기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일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민생을 되찾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한걸음 한걸음을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이날 군산시의회 김경구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시의원들은 군산시민시국선언을 제안하고,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국선언 참여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국정농단 최순실 구속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1000인 선언'을 위해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으며, 시국선언문은 오는 4일 한 중앙언론을 통해 게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총총 군산시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오는 4일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퇴진' 군산지역 시국대회를 개최 할 예정으로, 각 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시국선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곤기자

서커스이미지웍스-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

문화관광 발전 캐릭터 · 웹툰 개발 협약식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 캐릭터와 웹툰 개발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 문화관광의 이색적인 발전을 위한 캐릭터 및 웹툰 개발 관련 협약식이 최근 수송동에 위치한 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 사무국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국내 유수의 캐릭터 디자인 업체로 알려진 '서커스이미지웍스'와 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 간에 이뤄졌다.

특히 관이 아닌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 캐릭터와 웹툰 개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으로, 이번 협약식은 남다른 의미를 함께하고 있다.

올 초 출범한 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는 군산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젊은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에서는 올 여름 휴가철 군산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국내외 선진도시를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군산의 시간 여행과 맛집, 관광지를 접목한 캐릭터 개발을 준비해 왔다.

협약식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국제 캐릭터 박람회



를 찾아 캐릭터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을 살피고 지역 캐릭터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서커스이미지웍스 한세진 대표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캐릭터 하나가 도시 전체를 살리는 말이 있듯 캐릭터에 담겨져 있는 잠재력과 시너지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원이 많다"고 강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적극 나서 재미있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문화를 확장시키려는 의도와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협약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군산문화협동조합 'G 로컬아이' 박형철 이사장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 된 전략과 홍보 등을 통해 군산 관광 및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이러한 시도는 군산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시대(Glocalization)에 맞추어 국내·외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유치 성공

군산시가 국내·외 여성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7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KOWIN: Korea Women's Internatinal Network) 유치에 성공했다.

이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민족 여성들의 정보교류와 연대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매년 개최되어 왔다.

2017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유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외 문

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졌다.

17주년 대회는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군산시 공동으로 주최로 내년 8월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3박4일 일정으로 개최되며, 국외지역담당관 회의와 개회식 및 기조강연, 활동분야별 토론, 지역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는 전문가 및 공동 개최기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대회 참가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리더 및 차세대 여성리더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내년 코윈(KOWIN)대회에서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군산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한민족 여성리더들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해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청암산 원양길 · 꼬마숲 놀이마당 조성

군산시, 사업비 6억원 투입 내년 3월말 준공 목표

군산시가 청암산 방문객들의 몸과 마음의 힐링을 위해 역사숲과 어우러진 원양길과 꼬마숲 놀이마당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청암산 에코리노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내년 3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청암산과 군산호수의 생태특성을 고려해 이름 지어진 원양길 조성사업은 군산호수 제방 350m에 웬스와 쉼터를 조성해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설치를 마친 포토존은 원양길과 연계해 은빛 역사숲 길을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불거리를 추억의 한 컷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에 맞춰 회원면 세장리에 숲속 어린이 놀이터인 꼬마숲 놀이마당도 함께 조성된다.

꼬마숲 놀이마당은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숲에서 나무와 풀, 습지를 대상으로 살아있는 자연학습을 하며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곳에는 비가림 학습시설, 모래놀이, 언덕오르기, 통나무 건너기 등 자연에서 놀거리를 찾도록 했으며, 인근의 습지까지 데크를 연결해 아이들이 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장 신임 비서실장에 박윤선 사무국장 임명

정현을 익산시장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전서기관(4급)인 박윤선(사민) 익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임명장을 받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선동력 확보 차원에서 박윤선 전 국장을 검토해서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

박 전 국장은 오랜 공직 기간 동안 인사, 조직관리, 홍보 업무 등을 맡아 왔으며, 뛰어난 업무 능력과 친화력,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홍보담당관과 행정지원과장 및 의회 의사주장을 두루 거치면서 시의회 등 정치권 인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정 시장의 고민거리인 정부기능이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특성화사업단,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 진행

원광대학교 특성화사업단(단장 이선수 교수)은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의과대학 간호학과,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간호사 BIS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학과 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원광 플러스 페스티벌 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체험행사는 원광대의 생명산업특성과 실력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으로 준비됐다.

특히 간호학과는 지난해 심폐소생술 기본 정비들을 구입하고, 재학생들이

BLS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원불교 재학생에 정선 및 대학 건학이념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체험 행사에는 재학생 280여 명과 교직원 60여 명이 참가해 응급의학과 황용 교수의 사전 교육이 이어 간호학과 강지숙 교수와 간호학과 재학생들의 도움으로 체험 교육이 진행됐으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교육 이수증이 발급됐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서부보훈청, 국화축제서 보훈홍보관 운영

전북서부보훈청과 대한민국전통문화유족회 익산지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독립·호국영웅을 널리 알리고 갈등극복캠페인 등 보훈정책 홍보를 위해 11월 6일 까지 열리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보훈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호국영웅알리기프로젝트'의 일환

으로 익산 황금재·강희중 상사, 김제 인영권 하사 장을 차일혁경무관, 고창 조재미 준장 등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의 공적을 전시하고 있다. 전북서부보훈청과 전통군경유족회 익산지회는 매년 서동축제 및 국화축제에서 보훈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